

# 2009년 IT수출 1,210억 달러, IT수지 590억 달러 흑자

2009년 IT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1,209.7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IT수입은 62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5.7% 감소하였으며, IT수지는 2007년(603.7억 달러 흑자)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많은 58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달러, +3.2%), 반도체(08) 327.9억 달러 → (09) 310.4억 달러, △5.3%), 휴대폰(08) 334.4억 달러 → (09) 286.8억 달러, △14.2%)

### 【 국내업체의 세계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1Q	2Q	3Q	4Q	1Q	2Q	3Q
D램	48.2	49.4	48.8	50.4	54.2	57.2	56.9
낸드플래시	50.2	48.0	45.2	44.3	50.7	48.5	47.7
LCD 패널	40.5	41.7	43.1	49.2	52.2	49.7	48.0
휴대폰	25.0	24.7	24.7	26.7	28.0	30.1	31.6

\* 자료 : 패널 Display Search(2009. 11), 반도체 Gartner(2009. 12), 휴대폰 SA(2009. 11)

###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08년		2009년		
	12월	1~12월	12월	1~12월	
수출	전체 산업	362.4 (33.7)	3,637.7 (△13.8)	271.2 (△17.9)	4,220.1 (13.6)
	IT 산업	112.9 (73.4)	1,209.7 (△7.8)	65.1 (△39.2)	1,311.6 (0.8)
수입	전체 산업	329.4 (24.0)	3,227.9 (△25.8)	265.8 (△21.6)	4,352.7 (22.0)
	IT 산업	56.8 (34.6)	620.0 (△15.7)	42.2 (△32.4)	735.2 (5.4)
무역수지	전체 산업	33.0	409.8	5.4	△132.7
수지	IT 산업	56.1	589.7	22.9	576.4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265.2억 달러, 3.2%)은 글로벌 침체기였던 '09.6월에도 수출 증가로 전환되는 등 IT수출 회복을 견인하였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48%'(09년 3분기 기준)의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반도체(310.4억 달러, △5.3%)는 기술 우위와 전방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휴대폰을 제치고 2007년에 이어 IT수출 1위 품목이 되었으며, D램의 세계시장점유율은 56.9%로 전년 동기보다 8.1% 향상되었고, 낸드플래시도 47.7%로 확대되었다.

휴대폰(286.8억 달러, △14.2%)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수출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나,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신흥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사상 처음 세계시장점유율 30%에 진입하였다.

※디스플레이 패널(08) 257.0억 달러 → (09) 265.2억

상반기 IT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선진·신흥시장의 소비 위축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 감소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패널 및 반도체 수출 회복과 중국, 미국 등 주요 IT 교역국의 경기 부양 효과로 8.8% 증가한 68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12월 IT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73.4% 증가한 112.9억 달러, 수입은 34.6% 증가한 56.8억 달러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휴대폰(18.4억 달러, 12.8%), 반도체(34.5억 달러, 125.6%), 디스플레이 패널(26.3억 달러, 113.7%) 등 3대 수출 품목을 비롯해 프린터(16.6%), 모니터(63.3%), 칼라TV(부분품 포함, 144.6%), 셋탑박스(111.1%)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국가별로 미국(159.7억 달러, △5.8%), EU(170.4억 달러, △21.9%), 일본(66.2억 달러, △17.0%) 등 선진시장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중국(홍콩포함, 501.5억 달러, 2.7%), 중동(30.2억 달러, 1.6%), 인도네시아(8.8억 달러, 5.5%) 등 신흥시장은 선전하였다.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IT수출 1위 국가인 중국(홍콩 포함)은 꾸준한 수출 증가로 2008년 37.2%에서 그 비중이 41.5%로 확대되었다.

\* 중국(홍콩포함) 수출증가율(%): (03)54.4 → (04)39.7 → (05)29.6 → (06)12.5 → (07)14.9 → (08)4.8 → (09)2.7

\* 중국(홍콩포함) 수출비중(%): (03)26.3 → (04)27.9 → (05)33.3 → (06)34.1 → (07)35.8 → (08)37.2 → (09)41.5

【 '09년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310.4 (Δ5.3)	265.2 (3.2)	286.8 (Δ14.2)	1,209.7 (Δ7.8)
중국(홍콩포함)	147.8 (5.6)	153.7 (21.1)	88.7 (Δ4.5)	501.5 (2.7)
미국	24.0 (Δ4.4)	6.8 (Δ35.4)	83.5 (Δ0.7)	159.7 (Δ5.8)
일본	27.2 (Δ24.0)	8.6 (Δ30.2)	7.5 (9.4)	66.2 (Δ17.0)
EU	20.6 (Δ7.2)	45.8 (Δ13.5)	53.8 (Δ33.1)	170.4 (Δ21.9)

2010년 IT수출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으로 전반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반도체와 패널은 높아진 세계시장점유율과 남아공 월드컵 등 스포츠 특수와 윈도우 7 출시효과에 따른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휴대폰도 적극적인 신흥시장 및 스마트폰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 환율 하락,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 되지 않는 점은 수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반도체 : 310.4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5.3% 감소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증가로 '09. 8월 이후 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 수출 증가율을 기록 하였고, D램은 '09. 1월 36.8% 감소하는 등 부진했으나, 경쟁업체의 구조 조정과 PC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95.1억 달러 기록하였다.

한편, 낸드플래시도 '09. 상반기는 30%가 넘는 수출

감소로 부진했으나, 스마트폰, SSD(Solid State Drive), 메모리카드 등 전방산업의시장 회복으로 전년 대비 17.2% 감소한 20.0억 달러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세계 IT 생산 기지인 중국(홍콩포함, 147.8억 달러, 5.6%)을 제외한 미국(24.0억 달러, Δ4.4%), 일본(27.2억 달러, Δ24.0%), EU(20.6억 달러, Δ7.2%) 등은 대부분 국가는 감소세를 보였다.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반도체	15.0	15.4	18.1	21.1	24.0	25.2	27.0	28.8	32.1	34.3	35.0	34.5	310.4
	(Δ46.9)	(Δ40.6)	(Δ38.4)	(Δ26.2)	(Δ22.1)	(Δ23.0)	(Δ15.6)	(Δ7.2)	(9.2)	(36.4)	(80.1)	(125.6)	(Δ5.3)
메모리	7.2	7.9	8.7	9.8	11.5	12.4	13.3	14.7	16.0	17.8	19.4	20.0	158.7
	(Δ48.9)	(Δ42.4)	(Δ45.2)	(Δ37.6)	(Δ32.8)	(Δ28.9)	(Δ23.3)	(Δ12.7)	(10.5)	(56.0)	(114.1)	(174.8)	(Δ6.8)
D램	4.4	4.4	5.0	5.3	6.3	6.9	8.1	8.7	9.3	10.5	12.4	13.8	95.1
	(Δ36.8)	(Δ36.5)	(Δ41.2)	(Δ37.4)	(Δ34.0)	(Δ33.3)	(Δ25.0)	(Δ20.6)	(9.6)	(69.1)	(141.1)	(166.4)	(Δ2.3)
낸드	1.0	1.1	1.3	1.4	1.7	1.6	1.6	2.0	2.1	2.4	2.0	1.8	20.0
	(Δ65.4)	(Δ60.2)	(Δ42.5)	(Δ37.6)	(Δ30.6)	(Δ31.9)	(Δ31.5)	(Δ2.4)	(24.5)	(86.1)	(78.0)	(132.4)	(Δ17.2)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265.2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3.2% 증가

패널은 '08년 말 글로벌 경제 위기로 수요가 급감했으나, '09.6월 이후 증가로 전환되며, '01년 이후 8년 연속 수출 증가하였다.

패널 수출은 최근 대만 및 일본 업체의 가동률 증가로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확고한 고객 기반과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265.2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였다.

\*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 ('09.5)320 → (6)333 → (7)350 → (8)350 → (9)350 → (10)348 → (11)340 → (12)340

\* LCD 가격(노트북용, 15.4인치, \$): ('09.5) 54 → (6) 56

→ (7) 60 → (8) 63 → (9) 63 → (10) 61 → (11) 59 → (12) 55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1.1%), 폴란드(16.7%) 수출은 증가한 반면, 멕시코(△17.8%), 브라질(△32.6%) 등 중남미 수출은 부진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금액	12.4	15.0	19.4	20.2	21.1	22.4	25.0	25.5	26.3	26.6	24.9	26.3	265.2
(증감률)	(△40.8)	(△24.1)	(△12.7)	(△8.6)	(△7.2)	(4.0)	(5.1)	(7.8)	(4.1)	(10.3)	(34.9)	(113.7)	(3.2)

휴대폰(부분품 포함) : 286.8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14.2% 감소

글로벌 휴대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폴더치폰, 고화소 카메라폰, 스마트폰 등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유통망 확대를 통한 신흥시장 공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향상되었다.

\* 휴대폰시장점유율(%SA '09.11): ('08)25.3 → ('09.1분기)27.9 → (2분기)30.1 → (3분기)31.6 → (4분기(전망))30.7

다만, 신흥시장 진출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생산 비중 확대에 수출은 다소 정체된 상태이다.

지역별로 일본(7.5억 달러, 9.4%)은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힘입어 8년 연속 수출 증가했고, 미국(83.5억 달러, △0.7%)은 사업자 지향적 마케팅 강화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선전하였고, 부분품 중심인 중국(홍콩 포함, 88.7억 달러, △4.5%) 수출은 한 자릿수 감소하였고, EU(53.8억 달러, △33.1%), 남미(14.0억 달러, △24.2%), 동유럽(12.9억 달러, △14.0%)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하였다.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금액	21.9	23.6	23.9	24.4	24.9	25.1	26.2	22.8	25.1	25.8	24.7	18.4	286.8
(증감률)	(△21.7)	(1.2)	(△21.3)	(△18.4)	(△11.1)	(△7.4)	(△11.4)	(△18.0)	(△22.6)	(△31.3)	(2.8)	(12.8)	(△14.2)

칼라 TV(부분품 포함) : 52.3억 달러 수출, 전년대비 10.5% 감소

칼라TV수출은 LCD TV와 TV부분품 수출이 점차 회복세로 9월 이후 수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국내 업체는 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 채널에서의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 평판TV시장점유율(매출기준, %) : ('06)25.0 → ('07)28.9 → ('08)33.8 → ('09.3Q(누적))35.4

\* LCDTV가격(42인치, \$)( '09.5)983 → (6)985 → (7)994 → (8)1,187 → (9)1,075 → (10)1,020 → (11)1,040 → (12)1,007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43.2%), 멕시코(△10.7%)는 부진했으나, 폴란드(28.0%), 헝가리(10.8%), 인도(12.6%) 등 수출은 증가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전년(동월)대비)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1-12
칼라TV	2.8	3.4	4.4	4.8	3.9	4.1	4.5	4.4	5.4	4.9	4.6	5.1	52.3
(부분품 포함)	(△48.7)	(△38.8)	(△28.7)	(△18.6)	(△26.7)	(△22.7)	(△18.6)	(△8.8)	(△2.6)	(10.0)	(100.4)	(144.6)	(△10.5)
LCD TV	0.3	0.3	0.4	0.4	0.5	0.5	0.5	0.4	0.5	0.6	0.6	0.6	5.6
	(△47.0)	(△33.3)	(△36.8)	(△30.0)	(△27.3)	(△2.0)	(△35.5)	(△20.9)	(△12.5)	(28.9)	(37.3)	(94.3)	(△13.0)
PDP TV	0.2	0.2	0.2	0.2	0.4	0.3	0.2	0.2	0.2	0.2	0.2	0.2	2.7
	(△27.0)	(△20.8)	(△34.2)	(△12.4)	(6.3)	(△26.9)	(△18.4)	(△10.3)	(△29.2)	(△23.7)	(43.0)	(4.4)	(△15.3)
TV부분품	2.3	2.8	3.7	4.1	3.1	3.3	3.7	3.8	4.5	4.0	3.7	4.2	43.3
	(△49.8)	(△40.3)	(△27.5)	(△17.7)	(△28.6)	(△24.4)	(△15.2)	(△7.2)	(1.6)	(11.1)	(23.8)	(175.5)	(△9.5)